

# FACE TO FACE

사람과 사람, 그리고 살아가는 이야기

## 명문家

우리나라 최고의 여성정치인 평민당 부총재 ..... 박영숙

## 대물림 한가족

고려 청자를 재현하는 도예가 부자 ..... 방철주 · 방병선

## 아버지와 아들

‘욕심없는 마음’은 아빠 꼭 빼닮은 아들 ..... 김세환 · 김기범

## STAFF

“작은 꿈의 마을이에요” ..... KBS3TV ‘우리동산’

## 화제의 인물

우리나라형 어린이 자동차 안전장구 개발 ..... 권민수

## 아이들과 함께 하는 사람

‘어린이 찾아주기 종합센터’ 미아들의 아버지 ..... 권혁선

## 아빠는 선생님

한문통해 아이들에게 인생 가르치는 홍사단 한문선생님 ..... 이응문

## 화제의 인물

우리나라 최초로 ‘책 자판기’ 개발 ..... 염재웅

## 이 세상의 작은 빛

‘천사원’ 자원봉사하는 장애아들의 어머니 ..... 최부자

## 엄마는 선생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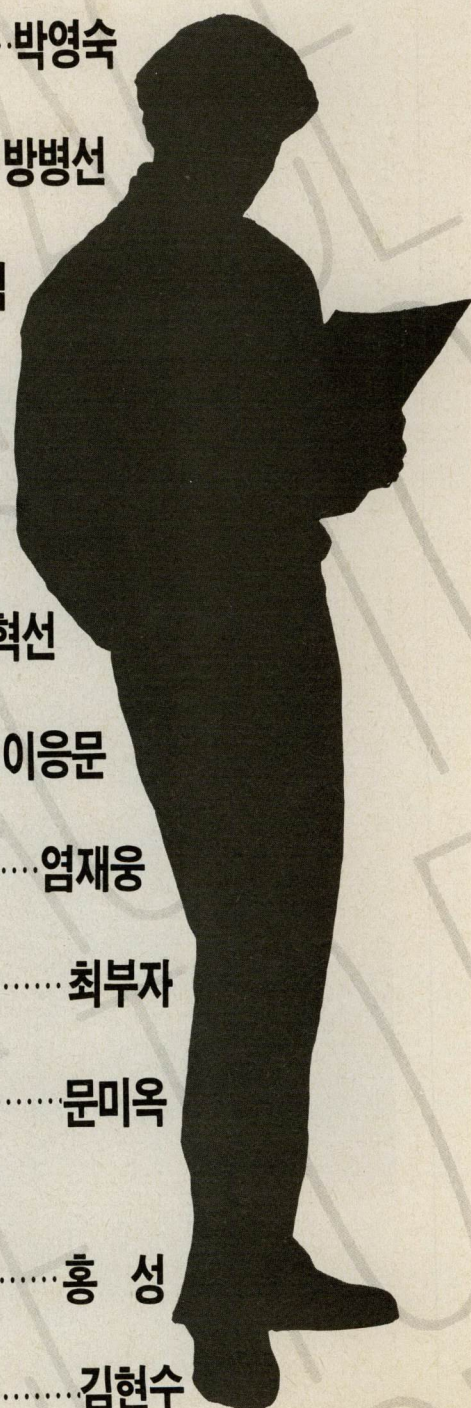
‘장난감 상담소’ 개설한 서울여대 교수 ..... 문미옥

## 엄마 만세

난치병 어린이 돕기 위해  
우리나라 최대 방송행사 ‘어린이에게 새생명을’ 연출한 여자PD ..... 홍 성

## 만나고 싶은 사람

한국 조기교육연구회 회장 ..... 김현수



재재 1991. 1월호





평민당 부총재

# 박영숙

## “부모라고 자식에게 무조건 강요해선 안됩니다”

제1야당의 부총재로서, 또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1인3역을 수행하고 있는 박영숙의원. 늘 활달한 표정에 안정된 분위기를 풍겨주는 박의원은 어린 시절, 어떤 가정풍토 속에서 살아왔을까? 또 나라를 이끌어가는 공인 아닌 한 집안의 살림꾼으로서 어떤 모습을 지니고 있을까? 그리고 그녀의 자녀교육관은 어떤 것인지 들어본다.

글/최미선  
사진/이재익

남녀를 불문하고  
평등주의를 실현하던 가정풍토

“그럼 조심해 가십시오. 어떡하나, 잼잼 많이 기다리셨죠? 정말 죄송합니다. 어서 들어오세요.”

평민당의 박영숙의원실은 무척 분주한

모습이었다. 방금 손님을 배웅하고 ‘잼잼’을 맞아들이는 박영숙의원은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체된 것도 아님에도 꽤나 미안해하는 눈치다.

국회의원의 연말연시는 그 어느 때보다도 바쁜 모양이다. 공인으로서 한 해를 마무리해야 할 일도 많고 또 만나야 할 사람들도 많

아진다. 박의원도 예외가 될 수는 없다.

박의원의 집무실에 들어서니 그녀의 책상 위엔 카드가 수북이 쌓여 있었다. 너무 많길래 얼마나 되냐고 했더니 무려 5천장이 넘었다. 그 카드에 자필로 일일이 인사말을 쓰고 박의원의 있었던 흔적이 남아있다.

“그래도 저는 다른 의원에 비하면 많은 편이 아닙니다. 아무래도 지역구가 없기 때문이죠. 5천장을 일일이 쓰기에는 좀 벅찬 면도 없진 않아요. 그러나 단 한 줄을 쓰더라도 직접 쓰는 것이 제 마음을 다소나마 전달할 수 있는 것이겠기에 이렇게 하고 있지요. 그래도 팔은 좀 아프긴 하네요.”

차분한 느낌의 베이지색 의상을 입은 박의원의 첫 인상은 무척 활달하고 활동적인 느낌을 갖게 했다.

한 남편의 아내, 자식을 가진 어머니로서의 평범한 여성이라는 신분과 동시에 제1야당의 부총재라는 평범하지 않은 직분을 함께 수행해야 하는 박영숙의원(59세).

이제 환갑을 바라보는 나이에 늦게나마 정치사의 한 몫을 담당하고 있는 박의원은 어떤 가정교육 하에서 생활해 왔는지 궁금했다.

“글쎄요, 인터뷰에 응한게 좀 잘못했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희집은 특별히 가훈을 지니고 있지도 않았고 또 제가 9살 때 아버님이 돌아가셨어요. 때문에 조부모님 밑에서 어머니가 가정을 이끌면서 그저 정으로, 사랑으로 키워주신 것 밖에 없어 뭘 얘기해드려야 할 지 모르겠네요.”

1932년 평양에서 3남3녀중 둘째로 태어난 박영숙의원. 별로 할 말이 없을 것 같다고는 했지만 박의원의 가정에는 나름대로 독특한 분위기가 있었다.

무엇보다 가장으로서 아버지의 권위가 하늘을 찔렀던 당시의 조류와는 아주 다른 풍토가 흘렀다. 틀에 얽매이거나 권위적인 모습이 없었다. 그리고 남편과 아내, 아들과 딸이라는 남녀구별을 찾아볼 수 없었다.

“제가 어릴 때 저희집이 교회옆에 있었습니니다. 저희 부모님은 크리스찬이 아니었지만 저희들로 하여금 교회생활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물론 평양기독교문명탕도 있었겠지만 당시처럼 남녀유별이 심하지 않았기에 지금도 여성문제를 그렇게 절박하게 느끼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한가지 생각나는 게 있네요. 그때만 해도

밥을 먹을 때 다른 집에서는 남자, 여자 다른 밥상에서 먹었어요. 밥을 풀 때도 남자것 먼저 푼 다음 여자 것을 푸는 풍토였죠.

그러나 우리집은 그렇지 않았어요. 저희 어머니는 언제나 남녀 구별하지 않고 태어난 순서대로 밥을 퍼 주셨어요. 아버님이 먹을 것을 사가지고 오시더라도 아버님, 어머니, 그리고 우리 6남매 똑같이 나누어 먹었습니다. 용돈도 마찬가지로였죠. 아무튼 우리 여덟식구 모두 똑같은 평등을 누렸죠.”

## 아직도 생생한 현대적 감각의 아버지에 대한 기억

박의원의 아버님은 무척 현대적인 사람이었다. 시대를 앞선 아버님 덕분에 박의원은 늘 친구들 앞에서 떳떳한 느낌을 갖지 못했다고 한다.

다른 아이들은 평범한 옷차림인데 비해 자신은 아버님으로 인해 늘 화려한 옷차림을 해야했다고 한다. 옷이 비싸서, 또 좋아서 그런 것은 아니었다. 같은 값을 주더라도 아버님은 평범한 디자인을 피하고 두드러진 옷을 골랐기 때문이다.

그러나 남들 앞에서 두드러지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그녀로서는 나름대로 ‘고역(?)’이기도 했다. 스스로를 고지식하고 융통성이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박의원은 그런 자신의 성격을 어린시절 학교생활을 통해 얘기해준다.

“학교 다닐 때였죠. 다른 아이들이 말썽을 피우거나 할 때 항상 선생님이 저를 교탁 앞으로 불러내셨어요. 그리고는 잣대를 제게 대시면서 ‘영숙이처럼 끈게 자랄 수 없냐’라고 말씀하실 정도였어요.”

박영숙의원은 어린시절을 대동강변에서 보냈다. 그래서인지 대동강변의 추억은 지금도 그녀에게 생생하게 남아있다.

“아버님과 함께 대동강변으로 수영을 자주 하러 갔었던 기억이 납니다. 당시로서는 아버지가 딸을 데리고 수영하러 가는 것이란 펍 드문 현상이었죠. 그리고 아버님은 가실 때마다 점심으로 토스트에 딸기잼을 가지고 가셨어요. 지금은 딸기잼 바른 토스트가 흔하기도 하고 별 맛을 못느끼겠는데 그때는 아주 독특한 맛을 주곤 했지요.”

지금처럼 자동차가 홍수를 일으키리라는 상상은 할 수도 없을 만큼 자동차가 귀했던

**“아버님은 자식이 잘못했을 경우 엄하면서도 결코 막 대하지는 않으셨어요.**

**잘못했을 때는 항상 스스로 회초리를 준비해 오라고 하셨죠. 그러나 준비해 온 회초리로 때리신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회초리를 스스로 준비하는 시간이 바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시대. 그러나 박의원은 아버님이 자동차 관련업체 엔지니어로 있었던 덕분에 자동차를 타 볼 수가 있었다.

“그것이 우리집 자동차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아버님은 시간 나시는데도 우리를 태워주시곤 했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들을 친구처럼 스스럼없이 대해주시던 아버님이셨지요. 그리고 저희가 잘못된 일이 있을 경우에는 엄하면서도 결코 막 대하지는 않으셨죠. 잘못했을 때는 항상 스스로 회초리를 준비해 오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준비해 온 회초리로 때리신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회초리를 스스로 준비하는 시간이 바로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박의원의 아버님이 자녀들에게 있어 무엇보다 중요시 했던 것은 약속의 의미였다. 약속이란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것을 몸소 보여줌으로써 그것의 중요성을 가르쳐주었다. 심지어 자녀들 앞에서 담배를 끊겠다고 약속하실 때 어길 시엔 스스로 큰 부담을 안게 되는 조건을 거시는 분이였다. 박의원이 지금도 자신이 한 약속은 꼭 지키려 하는 것도 주로 아버님의 영향이 컸다.

박의원은 서른 일곱이라는 늦은 나이에 안병무교수(현 한국신학 연구소 소장)와 결혼하였다. 그리고 결혼한 이듬해인 1968년, 외아들 재권이를 낳아 현재 서초구 우면동, 꽃동네 산 밑에서 단촐하게 살고 있다.

“외아들이기 때문에 늘 염두에 두었던 것



새해를 맞이하여 사람들에게 보낼 연하장을 준비하고 있다.

은 독립심을 키워주는 것이었어요. 아무래도 외동아이들은 그렇지 않은 아이들보다 부모에게 의지하려는 경향이 많을 것 같아서였죠. 때문에 어린아기때부터 잠을 재울 때도 자기방에 혼자 재워 키워어요.

그리고 외로움을 해결해주고 다른 사람들과 잘 어울릴 수 있는 방법을 늘 생각했어요. 그래서 방학 때면 캠프를 보내고 친척 내지는 친구와의 관계를 통해서 공동체 의식을 느끼게 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인구문제만 없다면 아이는 둘 이상 두어 아이들 스스로 공동사회를 느끼게 해주면 좋겠어요.”

## 자식에게 강요하기보다는 스스로 하게끔 이끈다

박의원은 무슨 일이든 간에 아이에게 강요하지 않았다. 늘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선택하게 했다. 박의원 자신이 어려서부터 주체적으로 일을 해결해 나가야 함을 배워왔기 때문이기도 하다.

“제 아이가 중학교 때 자모회에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대개 학교에 가게되면 충효를 강조하곤 했는데 저는 그것에 거부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저는 그것은 어른에게 절대복종하라는 의미가 강하게 담겨있다고 보고 있어요. 제 스스로도 무조건 복종하는 일은 없었고, 또 우리 아이에게도 절대복종을

강요하진 않았습다.”

자신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일지라도 항상 이치를 따져서 스스로 승복하게끔 하는 것이 어른의 바른 자세라고 생각하는 박의원은 웬만해서는 교육이라는 말을 쓰지 않는다.

늘 훈련을 통해 습성을 길러줌으로써 아이를 지도한다. 식사 후에는 늘 이를 닦는 습성을 갖게 하고, 어른을 보면 항상 인사를 하는 습성을 스스로 기르게 했다.

박의원은 아이들에게서 배울 점이 아주 많다고 보는 사람이다. 아이들은 현상 자체를 있는 그대로 보기 때문에 꾸밈이 없고 그야말로 순수하다고 말한다.

“우리 세식구는 저녁 식사 후에 가끔씩 산책을 즐기곤 합니다. 한번은 산책도중 어느 집에 심어진 아름다운 나무를 보게 되었죠. 아들 녀석과 남편은 나무가 아름답다며 쳐다보고 있는데 제가 문득 ‘야, 저 나무는 적어도 백만원쯤은 되겠다’ 했죠. 그랬더니 아들 녀석이 ‘그런 것을 숫자로 표현하면 되겠냐’며 대뜸 핀잔을 주더군요.”

그때 반은 농삼삼아 얘기했던 것이었지만 아들의 말을 들으니 속으로는 괜시리 뜨끔했었다고.

자라면서 언제나 ‘못한다’라기 보다는 ‘안한다’라는 사고방식으로 살아왔던 박영숙의원은 이렇게 얘기했다.

“아이들은 자라는 과정에서 이것 저것 따지지 않고 사달라고 하는 때가 많죠. 그러면 대부분의 엄마들은 아무 소리 않고 사주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적은 액수가드는 경우에는 모르겠지만 부모로서 사 주기 벅찬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부모들이 ‘안돼’하고 잘라 말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장난감 자동차를 사달라고 했을 때 엄마들은 쉽게 사주게 되죠. 그러나 진짜 자동차를 사달라고 했을 때 어떻게 사주겠습니까? 그러나 아이들은 자신이 왜 진짜 자동차를 가질 수 없는 지 이해를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이는 늘 그것을 갖고 싶은 욕구가 생기게 되어 욕구불만을 느끼게 됩니다.”

때문에 박의원은 아이로 하여금 못가진다고 얘기하기 보다는 ‘이것은 내게 안맞는다’는 것을 설명해주어 스스로 안 갖게끔 한다.

박의원 자신도 작년 들어서야 세탁기를 구입했다. 뿐만 아니라 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남들이 웬만하면 다 들여놓았던 가전제품도 없는 것이 태반이었다. 자신이 만약 못가져서 그렇다는 생각을 가졌다면 욕구불만에 쌓여 있었겠지만 스스로 안가진다는 생각을 하니 조금도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한가지 조심스럽게 덧붙이는 얘기가 있다. 자신의 세대를 스스로 샌드위치세대라고 보고 있는 박의원은 어느 정도 현대적인 감각을 지녔다고 생각하면서도 때론 ‘나 어릴 땐 이렇게 않았는데...’ 하는 생각이 가끔씩 든다고 한다.

“무엇보다 요즘 아이들은 물건 아낄 줄을 모르는 것 같아요. 옛날이야 물론 물자가 부족해서도 많이 아꼈지만 요즘은 너무 분수에 넘치는 경우가 많죠. 가끔 국민학교에라도 가게 되면 습득물이 잔뜩 쌓여있는 경우를 보게 되요. 그러나 습득물을 찾아가는 아이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물건이 당장 눈앞에 안보이면 금세 문방구에 달려가서 새로 사옵니다. 때문에 똑같은 물건을 여러개 가지고 있는 아이들이 꽤 많더군요. 아무튼 요즘 아이들 대부분이 물건 귀한 줄을 모르는데 제가 보기에 그것은 부모님에게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 부모의 의식구조는 바로 자식에게 전염된다

아이들의 검소한 생활 태도는 그 누구보다도 부모님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는 박의원. 그녀는 무의식중에 나타나는 부모의 행동은 곧바로 자식에게 전염된다는 것을 모든 부모들은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얘기한다.

부모라고 해서 자식 앞에서 모든 것을 다 잘 할 수는 없다는 박의원은 요즘들어 그것을 더욱 절실하게 느끼고 있다. 매 순간마다 이중, 삼중으로 주어진 역할 가운데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할 때 그 느낌은 더욱 진해진다.

그런면에서 볼 때 정계에 몸담은 지난 3년간은 다소 공인으로서만 치우쳤던 때문에 엄마, 그리고 아내로서는 낙제점이라고 한다. 0점까지는 안 가더라도 박의원 스스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많아야 49점 정도 밖에 줄 수 없다고 단정짓는다.

모든 사회구조는 가정구조의 바탕하에 이루어진다고 믿고 있는 박의원에게 있어 가정생활은 삶에 있어 아주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인간과 인간과의 훈훈하고 끈끈하게 이어진 마음이 모여 곧 따뜻한 사회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❶

박영숙의원의 가족이 총동원했다. 왼쪽이 부군되는 안병무 교수. 가운데가 아들 재권아.

